

- [2] Economist, "The vault is open: Microsoft makes its big move into health care", 2007. 10. 4
- [3] 강성욱 · 이성호,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7. 25
- [4] 오병민, "새로운 IT 블루오션 'U-헬스케어': 해외의 글로벌IT업체, U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가담", ZDNet Korea, 2007. 8. 29
- [5]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즈, 헤럴드경제 각호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IT 협력 동향: IT ODA¹⁾를 중심으로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주임연구원 홍승연
(T. 570-4084, syhong@kisdi.re.kr)

1. 개 요

1995년 UN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래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을 관장하고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²⁾는 1996년 5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DAC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국제개발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개도국 빈곤퇴치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UN총회는 물론 각종 국제회의에서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곤퇴치에 대한 국제적 중요성을 확인,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과 함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³⁾가 채택되었다.⁴⁾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2)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멕시코,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등 8개국은 OECD 회원국이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3)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의 주요내용은 ①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④ 아동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⑧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전체 경제개발과 협력에 있어 IT부문의 비중 및 영향력이 커지면서 MDG의 달성을 위한 정보통신부문의 개발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IT기술 발전을 전세계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노력 및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개최된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정보격차'임을 지적, 국가 간 정보격차와 정보격차 해소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개도국의 ICT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결의하였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 11위⁵⁾이며, IT 부문에서는 2005년과 2006년 연속 ITU가 발표하는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ies Indicator: DOI)' 세계 1위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Global IT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IT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對개도국 IT협력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98년부터 본격적으로 IT분야 ODA사업을 추진하여 전세계 104 개국에 2,300여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명 규모의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13개 개도국에 정보접근센터 구축, 61개국에 약 2,000여명의 봉사단 파견, 10여개국 이상의 개도국에 정보통신정책 자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IT정책경험을 개도국과 나누고 개도국 IT정책 전문가들의 역량배양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정보격차해소를 통한 개발격차 해소 및 빈곤 퇴치라는 커다란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對개도국 IT협력활동을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증대하는데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문

가. 개도국 IT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한 개도국 IT 역량배양 지원

개도국의 IT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IT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인력 자원의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IT 공무원 및 주요 업체의 임직원 등 개도국 IT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의 교육 개발 지원을 위해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

4) 권 율,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민간부문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4

5) 2007년 10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07~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 11위를 차지하였다.

히 정보통신부에서는 對개도국 IT 협력활동을 위해 1998년부터 개도국 및 잠재시장 등 해외 진출 전략국가의 IT정책결정자와 CEO 등을 대상으로 초청교육사업을 수행해 왔고 '07년 9월까지 총 104개국 2,300여명에게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KOIL(Korea IT Learning Program)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IT 초청연수사업은 주요 IT 정책 및 기술 등의 주제별로 과정을 구성하여 국가정보화 과정, 정보보호 과정, 디지털 방송과정, 전파관리과정, 통신규제 정책과정, 이동통신과정 등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정보화 정책의 경우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ASEAN, 중남미 등의 지역별로 나누어 지역협력과정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위급 과정을 통해 개도국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IT Korea 발전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차세대 IT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중장기 IT 기술 연수 지원 등 개도국 IT 인력개발을 위한 중장기 개발 지원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 IT인력개발 지원은 개도국 IT전문가의 역량배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교육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친한 국적 IT 환경이 조성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표 1〉 해외 IT전문가 단기 초청연수(KOIL) 지역별 현황

(’07년 9월 기준)

지역	국가수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아시아 태평양	34	73	134	148	211	149	213	202	173	154	141	1,598
CIS	9	9	6	12	3	20	17	19	18	15	28	147
중동	8	2	-	-	9	-	8	29	19	16	3	86
유럽	11	6	12	5	2	9	36	20	18	16	16	140
중남미	20	1	4	1	30	17	40	29	42	33	10	207
아프리카	22	2	2	2	11	12	27	19	16	27	25	143
계	104	93	158	168	266	207	341	318	286	261	223	2,321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나. 개도국 IT정책 수립 지원: 한국형 IT정책 경험 전수

한국은 정부주도의 성공적인 IT 정책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IT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나아가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IT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IT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초창기에는 개도국과 IT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개도국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IT 컨퍼런스 및 워크샵 등의 지식협력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점차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IT정책방향을 제시하는 IT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IT 정책자문 사업은 개도국에 국가정보화 정책, IT산업정책, IT법제도, 정보보호 정책 등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자문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IT정책경험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IT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IT정책자문은 개도국 IT 발전 지원을 통한 국제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IT정책 경험을 전수, 전파함으로써 친한국적 IT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2002년부터는 동아시아 IT 리더쉽 확보 및 나아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협력사업'을 추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IT정책자문단을 파견,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IT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기술전수를 활성화하여 개도국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왔다.

IT 정책자문 사업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IT정책 분야에 대해 현황 분석과 한국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IT정책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문보고서를 도출하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로 ASEAN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IT정책자문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도국 정보통신 협력사업'으로 확대 발전함으로써 ASEAN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IT정책자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 현황 분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사업 외에 우리나라의 IT정책을 직접 주도해 온 고위급 IT전문가를 개도국에 장기 파견하여 개도국의 IT정책수행에 대한 상시자문활동을 하는 전문가 파견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상시자문활동을 하는 전문가 파견 사업은 IT정책자문을 통해 제시된 IT정책 및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문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개도국의 IT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화, 특히 전자정부 정책의 경우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SI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개도국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사업 및 개도국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S) 사업 등이 20여개 국가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 밖에도 World Bank 등의 국제은행이나 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도국 국가정보화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표 2> IT 정책자문사업 추진실적(2002년~2007년)

년도	수혜국	자문분야	비고	
2002	베트남	한-베 ICT포럼, 기술이전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 소개 및 기술이전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우수 신기술 소개 및 기술이전 상담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	
2002/2003	미얀마	미얀마 e-National Task Force와 협력을 통해 미얀마 행정전산망 구축 및 전자정부 추진계획 기술 타당성 검토 등 자문		
200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마스터 플랜 수립에 있어 한국의 IT 839정책 소개 및 인도네시아 통신개혁 방향 자문		
	베트남 하노이시	베트남 하노이시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 및 정책 자문		
2005	캄보디아	캄보디아 전자문서교환 및 관리시스템(EDIS/EDMS)자문		
	라오스	전자정부 정책 중 e-Procurement 전략 자문		
200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이버법 체계 수립 자문		
	필리핀	필리핀 국가 CERT(인터넷 침해대응팀) 구축 자문		
2007	미얀마	국가정보화 정책 (G2G 및 G4C를 중심으로) 자문 진행 중		개도국 공동 번영 정보통신 협력사업
	캄보디아	통신 정책 및 전파법 체계 자문 진행 중		
	우즈베키스탄	정보보호(CERT) 정책 자문 진행중		
	베트남	국가정보화 정책 전문가 파견(7월말~10월말)		
	인도네시아	통신정책 전문가 파견(7월말~11월초)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 개선 지원

한국정부는 개도국 IT발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다. 특히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함으로써 IT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과 IT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IT 교육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먼저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은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지원 개도국에 인터넷라운지, 정보화교육장,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IT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개도국의 정보이용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상 및 한국 정보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 정보격차해소 지원활동이라는 IT강국의 역할 수행모델을 제시하고 IT Korea라는 국가이미지를 각인시켜 수혜국에 국내 IT기업들의 수출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 동아시아 정보접근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캄보디

아에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2개국 12개소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지원하여 왔다.

또한 한국의 IT 위상제고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구축한 접근센터 중 장비 연한이 오래된 정보접근센터를 대상으로 장비 업그레이드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유지 보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센터는 현지주민에게 한국산 IT 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IT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하고 현지 정부 및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IT Korea의 홍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현지 최첨단 정보화 교육시설로서 수혜국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격차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지역별 주요 협력 국가에 정보접근센터를 추가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IT산업의 해외 진출 시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 3〉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현황

구축국가	구축지역	구축기관	개소	유지·보수 및 재개소
캄보디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02. 11. 25	'06. 11. 20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 경제대학	'03. 10. 16	'07. 7. 10
베트남	하노이	우전통신 교육훈련센터	'03. 11. 05	'07. 11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여성개발연합	'04. 03. 03	'07. 5. 6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무역훈련센터	'04. 10. 15	
불가리아	소피아	소피아 국립철도청 사무소	'04. 12. 20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직업훈련원	'05. 05. 27	
튀니지	튀니스	튀니스 과학단지	'05. 11. 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우정국	'06. 07. 04	
나이지리아	아부자	기업기술센터	'06. 11. 14	
몽골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대학	'07. 06. 1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	'07. 10. 25	
케냐	나이로비	케냐 통신기술대학	'07. 11. 09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부는 또한 개도국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KIV(Korea Internet Volunteers)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 IT전문가 등 IT인력을 정보화 후발국에 파견하여 약 1개월간 현지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이용 능력 향상 및 IT Korea 홍보 등의 IT봉사단 활동

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의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 글로벌 IT Korea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은 개도국 주민을 대상으로 PC일반교육 및 인터넷 활용 등의 정보화 교육 및 관련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IT발전상을 소개, 홍보하고 문화교류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정보문화를 전파하는 IT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실적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파견국가	20개국	27개국	42개국	32개국	33개국	29개국	36개국	61개국
파견팀	61팀	47팀	87팀	75팀	86팀	80팀	87팀	523팀
파견인원	175명	206명	345명	300명	320명	304명	324명	1,974명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결 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개도국 IT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IT역량배양 지원, 한국의 정책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IT정책 자문,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해외 인터넷청년 봉사단 파견과 같은 개도국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 등의 개도국 대상으로 다양한 IT협력활동을 추진·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활동 외에도 국제 IT협력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신흥 IT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도국에 국제 IT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정보화 컨설팅, 공동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과 인력교류 등의 활동과 UN ESCAP⁶⁾ 산하 IT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APCICT(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CT Development)를 유치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개발 및 개도국 IT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설립된 APCICT에서는 개도국 IT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아태 지역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협력관계 구축, IT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e-Hub 구축, 정부 지도자 IT교육 프로그램 진행, IT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APEC, APT, ASEAN 등의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가운데 개도국 대상으로 다양한 IT협력 사업 및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

6) UN ESCAP은 UN 산하 아태 경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로 UN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의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이다. UN ESCAP은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점차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밀접해 지면서 IT 단독으로의 국제협력활동에서 나아가 일반 산업 및 경제 기반으로써 다른 분야와 접목되어 對개도국 협력활동들로 발전·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 및 부분까지 모두 아우른다면 한국의 IT부문에 있어서의 對개도국 협력활동은 더욱 방대해 질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정보통신부 주도로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IT 협력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對개도국 IT협력활동들은 일련의 개발협력활동으로 특히 개도국의 IT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정보격차해소라는 문제를 해소하여 동반자적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활동들은 일방적인 지원 협력활동이 아니라 개도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형 IT정책경험 전수를 통한 친한국적 IT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강인수 외, 『2006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IT정책자문)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2
- [2] 김태은, “정보통신개발을 위한 ODA의 현황과 추세,” 『정보통신정책』, 제17권 9호 통권 37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5
- [3]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2006』, 2007. 6
- [4] 권 율,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민간부문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4
-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
- [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www.software.or.kr)
- [7]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
- [8] 한국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